

2023-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교육학과 20200632 한성민

북악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글말특강 포스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곤 했는데, 올해는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특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방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비대면 녹화강의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시험과 과제,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등의 병행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강의가 있더라도 일정이 겹치거나, 미리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특강을 신청하기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글말교실’은 따로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가 없기에, 공장 시간을 활용하거나, 취침 전 머리를 말리며 강의를 듣는 등 자신이 편한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수강이 가능해 효율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또, 모든 회차를 다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앞선 강의를 들지 않아도 다음 회차로 넘어갈 수 있어,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관심 가는 강의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많은 강의 중 가장 실용적으로 보이는 ‘5회차 - 스피치로 소통하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평소 발표하는데 있어서, 남들보다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이기도 했고, 이후 취직을 위한 면접을 볼 때 해당 강이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웅얼거리며 말하는 습관과 대화의 결론이 산으로 가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효과적인 스피치 방법’과 ‘다양한 전달 방법’ 등을 배운다면, 이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강 후, 상대방에게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등을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피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 해결방안을 찾는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전문 면접학원은 ‘스피치’ 수업의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학교에서 인증된 전문가인 ‘교수님’의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던 특강이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안내와 다른 강의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홍보 포스터 및 안내에는 K-MOOC에 들어가 강의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K-star track에 들어가서 수강신청을 해야지만 수강이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기도 했고, 안내와 다른 점에서 혼

돈이 와 다음 진행 시에는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